

칠교 놀이 - 전통퍼즐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날 씨 :

장 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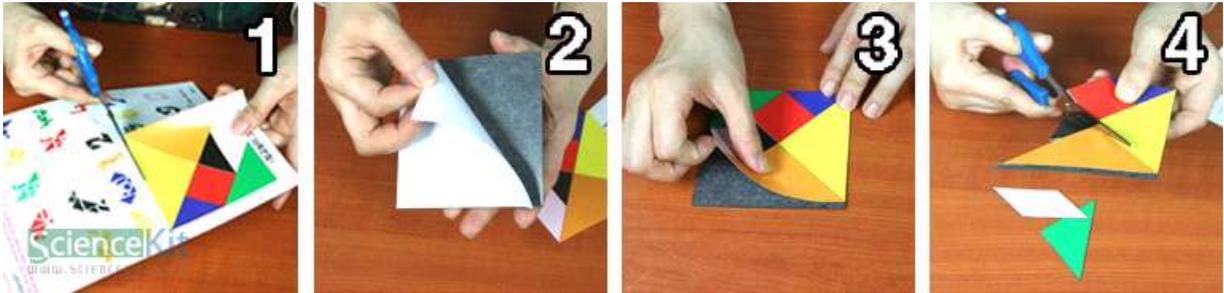
학 교 학년 반 번 이 름 :

퍼즐과 같은 전통놀이 '칠교 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칠교판을 만들어 놀이해 봅시다.

실험키트구성 고무자석, 칠교놀이 활동지

준비물 가위(칼), 자, 필기구

실험과정



[칠교판 만들기]

1. 활동지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칠교놀이 그림모형>을 테두리만 가위로 오리고 고무판의 흰 종이를 떼어낸 후 고무판 위에 붙입니다.
➡ 그림모형이 고무판에 한번 붙으면 떼기 어려우므로 모서리를 잘 맞추어 붙입니다.
2. 고무판에 붙여진 그림모형의 조각들을 선을 따라 가위로 잘 오려냅니다.
➡ 자와 칼을 사용하면 절단면이 깨끗합니다. 손을 조심하세요.

원리학습

칠교 놀이 일곱 개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교묘하게 판을 짜는 칠교놀이는 오래 전부터 유행되어 온 전통 놀이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만드는 동안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덜도록 이런 놀이를 했다 하여 유객판(留客板) 또는 유객도(留客道)라고도 부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놀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시대 1803년에 이 놀이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그 기원은 훨씬 오래 전부터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칠교판 놀이는 유럽으로 건너 가 19세기 초 부터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 탱그램(tangram, 지혜의 판)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에 대하고 섬으로 귀양살이를 할 때 이 놀이로 운적한 마음을 달랬다고도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앨런포우가 이 놀이를 광적으로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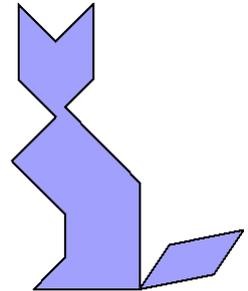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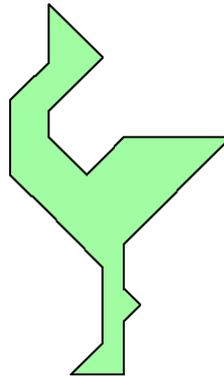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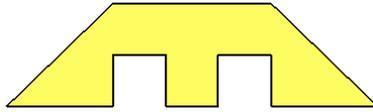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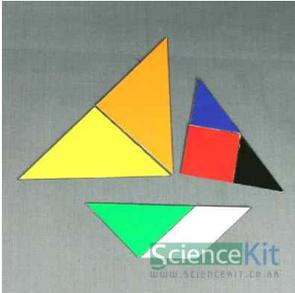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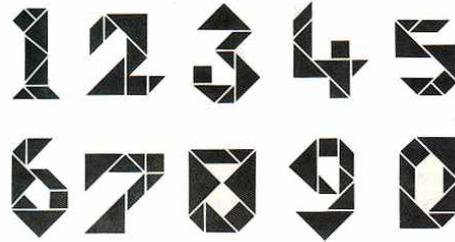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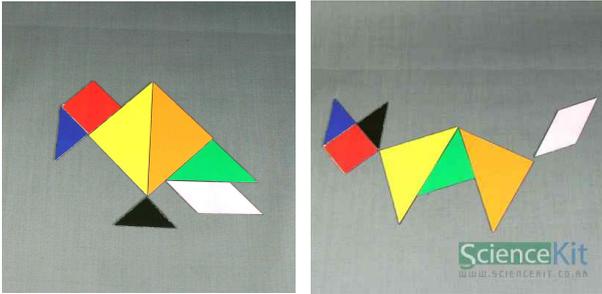
실험 시 주의 사항

1. 가위를 사용하여도 잘 잘립니다.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칠교판은 정사각형이 되어야(각 모서리의 각이 90도)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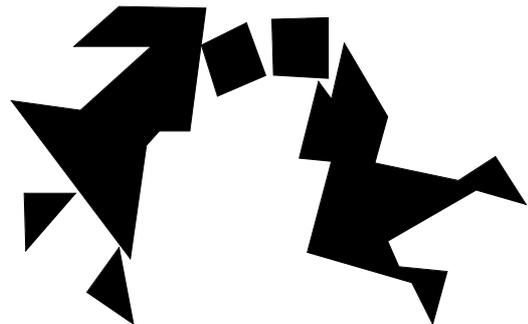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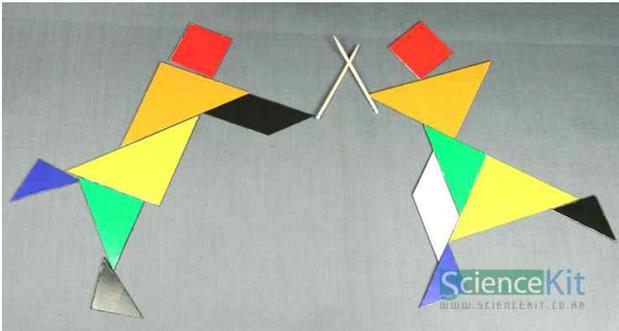
[놀이 하기]

1. 반드시 일곱 조각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형태는 인물, 동물, 식물, 기물, 건축물, 지형, 글자형 등의 여러 가지 모형을 그린 모형도를 보면서 만듭니다. 자유롭게 만들어 보아도 좋습니다.
3. 자석이니까 냉장고나 자석칠판에 붙여보면 더욱 재미있겠지요.

[혼자서 해보는 칠교놀이]



[둘이서 같이하는 칠교놀이]



[내가 만들어 본 칠교놀이]

▷ 내가 스스로 만든 모형을 그려 봅시다.

■ 교사용 실험 자료실 ■

실험 제목	칠교 놀이		실험 원리	전통놀이인 칠교놀이 이해와 창의력 향상	
실험 시간	40분	실험 분야	창의	실험 방법	개별 실험
세트구성물	고무자석, 칠교놀이 활동지				
교사준비물			학생준비물	가위(칼), 자	
실험 결과	칠교판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험팁	<p>TIP 1. 가위를 사용하여도 잘 잘라지며, 칼 사용 시 손을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 자와 칼을 사용하면 절단면이 깔끔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p> <p>TIP 2. 칠교판은 정사각형이 되어야(각 모서리의 각이 90도)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p> <p>TIP 3. 활동지를 고무자석에 한 번 붙이면 떼기 어려우므로 두 모서리를 잘 맞춰 붙입니다.</p> <p>TIP 4.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예쁘게 꾸미도록 하면 재미있는 활동이 됩니다.</p>				

칠교놀이 [七巧-] -백과사전

사방 10cm 쯤 되는 나무판으로 만든 직각삼각형 큰 것 2개, 중간 것 1개, 작은 것 2개, 그리고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 각 1개씩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놀이.

칠교라는 이름은 이 나무판이 7개로 이루어진 데서 왔으며 따라서 판을 칠교판 또는 칠교도라고도 한다. 이 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아 널리 즐긴다.

예전에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주인이 놀이판을 내어 놓기도 한 까닭에 이를 유객판(留客板)이라고도 불렀다.

아이들의 놀이에는 몸을 단련시키는 목적 외에도 창의성을 기르고 인지전략을 기르는 놀이가 있다. 칠교놀이도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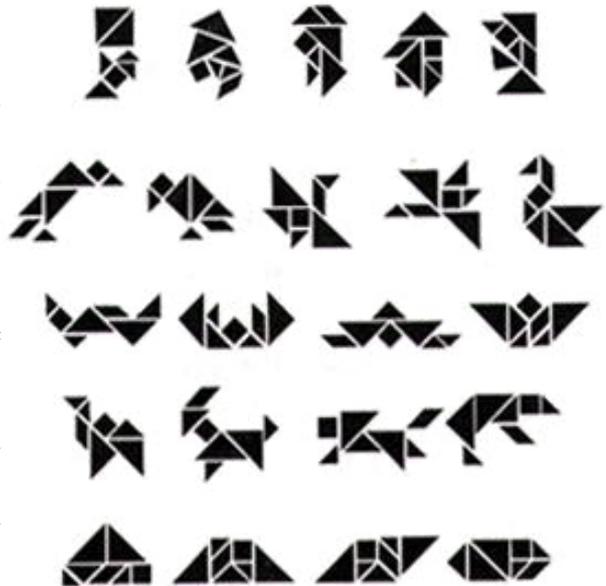
칠교놀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놀이다.

이 놀이는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 조각으로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를 만들면서 즐기는 놀이인데,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덜도록 이용되었다 하여 유객판(留客板) 또는 유객도(留客圖)라고도 불린다.

놀이에 사용되는 조각은 사방 10cm 가량의 얇은 나무판을 삼각형 다섯 개와 마름모꼴 한 개, 사각형 한 개로 나누어 준비하는데, 보통 피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은행나무를 쓴다.

일곱 개의 조각으로 만드는 형태는 인물, 동물, 식물, 기물, 건축물, 지형, 글자형 등의 여러 가지 모형을 그린 대본을 보면서 만든다. 이때 반드시 일곱 조각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장서각 소장 고서 중에 칠교놀이의 방법을 그린 『칠교해(七巧解)』가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300여 종에 달하는 대본이 그려져 있어 오래 전부터 이 놀이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자료에는 일곱 조각 외에도 아홉 조각, 열 네 조각까지 소개되어 보다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칠교판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

다양한 모형판

